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석사(영어영문)학위논문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비극적 갈등의 연구

-A Study on the Tragic Conflict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전공

박 수 미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비극적 갈등의 연구

-A Study on the Tragic Conflict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2009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전공

박 수 미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비극적 갈등의 연구

-A Study on the Tragic Conflict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지도교수 김 영 관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전공

박 수 미

박수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 정 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관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추 영 식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	1
II. 오닐의 자서전적 배경 .....	4
III. 가족 간의 비극적 갈등의 성격	
A. 현실도피 .....	9
B. 소속감의 상실 .....	18
IV. 갈등의 극복 과정	
A. 부부간의 애증 .....	25
B.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	37
C. 형제간의 질투와 용서 .....	49
V. 결론 .....	55
<i>Bibliography</i> .....	58

## ABSTRACT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 나타난 비극적

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gic Conflict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Park Su-Mi

Faculty Advisor: Prof. Kim Young-Kwan, Ph. D

Department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uss the tragic conflict among the family relationship shown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Eugene O'Neill requires that we would recognize the human universal agony, that should be the reality of essential loneliness in life, the conflicts of love and hate, and the human tragic agony.

Eugene O'Neill is one of the major figures of American Literature. From the beginning of his career he attempted to transmit his practical experiences into his plays. When we consider his plays in relation to his life, both autobiographical and symbolic, it seems to suggest his continuing search for salvation in a spiritual sense. He, in his many plays, treated various tragic materials which would effect on man's inner life. He took into consideration about the existential question in our life. He represented his own dramatic style against inhumanity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which is said to be the most autobiographical, derives from O'Neill's memory in his family. The

mammonish father - James Tyrone, his drug using wife - Mary, His alcoholic elder son - Jamie, and his nihilistic younger son - Edmund, all want to get away from the present reality. They escape from the darkness that hovers about their family. They are unable to restore the good days, feeling perfectly helpless.

In this play, Tyrone's stinginess and Mary's drug addiction act as the Force behind. The Tyrones bound to the chain of love-hate suffer from the conflict which appears in the wife-husband, the parents-child, and the brother-brother relationships. But they come to confess to each other their remorseful past and their complicated emotions of love and hatred. With this confession all the family members have the courage to accept their unhappiness caused by both their fault and life itself. Especially Edmund who is the portrait of O'Neill himself purifies his painful life and has a deep understanding about himself and his family.

In conclusion, his tragedies in this play achieve a relentless inner awareness, with an occasional mysterious moment of transcendence.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his domestic tragedies are lack of affection among the characters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family can come from the self-realization of each other. O'Neill thought that man can find his real ego by denying his pseudo-ego and have a new appreciation of himself and gain the real human understanding.

Through this play, O'Neill shows that man realize the meaning of the most valuable life by enduring the pain even though he is bound by tragic fate.



## I. 서론

Eugene Gladstone O'Neill(1888-1953)은 미국의 현대 비극작가로서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는 일반적으로 공연 시기를 기준으로 3기로 구분된다.<sup>1)</sup> 제 1기(1920년 이전)는 초기의 습작 시기로 해양 단막극 시대이고, 제 2기(1920년-1934년)는 사실주의 장막극으로 시작하여 표현주의, 상징주의 등극 형식을 다양하게 실험하던 왕성한 창작 시기이며, 제 3기(1946년 이후)는 오닐이 사실주의 장막극으로 다시 돌아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시기이다.<sup>2)</sup> 제 3기 사실주의 장막극 시기에서 특히 자신의 자서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는 오닐의 실제 삶에 바탕을 둔 작가의 영혼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은 제목 그대로 어두웠던 가족사의 비극을 낱알이 드러내는 긴 여행이다. 오닐은 이 극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로움과 갈등, 가정의 상실, 고뇌, 그리고 화해와 희망의 여정까지, 단순한 기교나 허구를 묘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의 비극의 의미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닐의 시간적 활동의 배경이 된 미국은 물질과 부의 추구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사회로 접어들었다. 정치 및 사회적으로는 청교도 이주민들의 정착문제, 양키와 인디언의 자유 문제, 흑인 노예제도 문제 등의 변화와 시련을 겪게 되었다. 밖으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때문에 미국적인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다. 그 가운데 희곡 문학의 흐름은 영국과 유럽대륙의 연극을 모방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미국적 연극의 토대를 확립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었다.

---

1)Margaret Loftus Ranald, *The Eugene O'Neill Companio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4), pp. 731-733 참조.

2)Gerald M. Berkowitz, *American Drama of the Twentieth Century* (Longman Group UK Limited, 1992), p. 16.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오닐이 혜성처럼 떠올라 현대 미국의 새 희곡의 장르를 개척하는 데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연극은 사실주의 시대극과 상업성 위주의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극 활동에 대한 반발로 프린스타운 극단과 같은 소극장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격동기의 시대에 오닐은 그의 작품 속에서 사회의 모든 혼란의 근본이 되는 방황과 고독감 그리고 소속감의 상실이 인간의 비극적 삶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동기를 추적하여 작품화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렬했다.

오닐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나 대중의 반응은 극작 초기에서부터 말기, 그리고 그의 사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셰익스피어와 그리스 연극에 견주어 찬사를 받기도 하였고 감각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는 멜로드라마 작가라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양극단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작품들이 무대 위에 올려지고 책으로 출간되었고 영화나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다시 각색되어 제작되기도 하였다.<sup>3)</sup> 이는 현대 미국 연극에서 오닐의 예술적, 대중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초기에 오닐의 작품에 관한 평은 일반관객을 위한 신문이나 잡지의 서평, 기사에서나 볼 수 있었다. 1926년 Barrett H. Clark의 비평<sup>4)</sup>은 본격적인 오닐 연구의 효시였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오닐은 *Days Without End*(1933년)의 초연 실패 이후 12년간의 오랜 공백을 거친 후, *The Iceman Cometh*(1939년), *Long Day's Journey Into Night*(1941) 등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서전적인 대표작 *Long Day's Journey Into Night*를 중심으로 그의 비극 사상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오닐의 비극세계의 핵심적 주제는 그의 자서적인 요소에서 출발하여 비극적 사상을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결론을 추출하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의 비극사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 II장에서는 본론에 앞서 작

---

3) Margaret Loftus Ranald, *The Eugene O'Neill Companio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p. 735-750 참조.

4) Barrett H. Clark, *Eugene O'Neill* (New York: Robert McBride, 1927) 참조.

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서적인 배경을 도입단계로 제시하고, 제 III 장에서는 가족 간의 비극적 갈등의 성격을 제시하고, 제 IV장에서는 비극적 갈등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 가를 살펴보고 결론에서 그의 비극적 특색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 오닐 극의 자서전적 배경

오닐의 *Long Day's Journey Into Night*는 자서전적인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Brooks Atkinson은 “그 (오닐-필자 주)의 생애에서의 모든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sup>5)</sup>라고 주장한다. 그의 전기적 요소는 작품의 중심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어 전통적 비평 방법으로 접근하여 일차적으로 자서전적인 요소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작품의 분석요건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듯, 그의 생애 및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때 비로소 그의 문학성격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sup>6)</sup>

당시 국내외의 격동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희곡 역사는, 유럽의 역사에 비하여 매우 미비하여 흥행 위주의 상업주의적 멜로드라마와 당시의 정치 사회적 풍자를 내세우는 시대극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오닐의 작품세계는 신과 인간의 문제,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무의식의 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의 본능적인 물질과 사랑에 대한 욕망, 집착, 탐닉 등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을 소재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비극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는 종전의 전통적인 유럽의 희곡의 주제나 구성방법을 탈피하여 실험적이고 선각자적인 미국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사회는 첨단 기술과 과학문명으로 인한 편리함과 물질주의가 주는 풍요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도를 넘고 있다. 인간은 군중과 풍요 속에서 더 큰 절망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세기 문명사회를 맞이하여 현대는 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과거의 기존질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나 인간은 각자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과거보다 더 심각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화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오닐은 스트린드베리의 영향을 받은 S.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토대를 두고 고대 그리스 신화적인 인물들의 다양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

5) Arthur and Barbara Gelb, *O'Neil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p. xix

6) 김 진식, 『유진 오닐 評傳』 (서울: 현대미학사, 1999), p. 9.

또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의 현대극의 다양한 극 형식을 창조하여 실험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작품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중심을 인간에 두었다. 미국 작가들 중 가장 우울하고 비관적인 작가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 질 만큼 그는 인간의 어두운 근본적인 자아를 탐색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본원적인 자기 자신의 진실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그의 말기 유작중의 하나인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상실한 인물들의 소외의식과 그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그의 자서전적인 가족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 그가 사후 25년 동안 이 작품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유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가족의 비극적 과거와 마주하게 한 그의 실제 삶의 자화상이다.

극의 형식은 극히 단순하여 상징이나 내적 독백 따위의 실험적 기교도 일체 없으며 플롯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 등장인물들이 과거 속으로 침잠하면서 사랑과 증오를 중심으로 한 인간 고뇌의 심연을 파고드는 일련의 사건들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적인 묘사에서 독자와 관객들은 작가의 진솔한 영혼과 대화할 수 있어 생동감 넘치는 활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 극은 작가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확인한 것인데, 최종적인 효과는 침울이나 도피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연민과 공포의 정화작용에 가까운 카타르시스를 마음껏 음미하게 된다.<sup>7)</sup> 즉 비극의 진면목을 감지함으로써 그 속에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의 각자 역할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되는 애증의 양면 감정으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헤치며 이 극은 어두운 분위기의 긴장감으로 진행된다. 이 작품뿐 만아니라 오늘의 많은 작품들이 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만큼 그의 삶의 환경을 되짚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은 1888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극단의 배우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카톨릭

---

7) 박 용목, 『유진 오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p. 113 참조.

릭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유명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순회공연을 따라 다녀야만 했으므로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정적인 환경이 그에게 인생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하게 한 대표적인 이유가 된다. 그러나 또한 극단배우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오닐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연극과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그가 희곡 작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James O'Neill은 아일랜드 이주민으로 어린 시절 미국사회에 정착하며 겪어야만 했던 빈곤과, 고통을 잊지 못해 평생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오닐을 낳으면서 산고를 잊기 위해 사용했던 마약이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 약물에 의존하며 현실을 도피해야만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의 형 Jamie 또한 어릴 때의 영특했던 아이에서 점차 성장하며 술과 여자에 의존하여 문제를 일으키며 반사회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서전적인 요소는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Frederic Carpenter의 다음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닐의 모든 희곡작품은 그의 내면에 있는 자아와 그의 삶의 이해를 향해 만들어진 자서전적인 것이다.

All of O'Neill's dramatic art is autobiographical, for it is directed toward the understanding of his own life and his inner "self".<sup>8)</sup>

이러한 그의 자서전적인 가족의 모습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녀두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과 내면을 추적해 나간다. 작품에 표출되는 여러 가지 비극의 요소는 비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요소가 아닌, 가족이라는 관계, 즉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의 연결 속에서 드러나는 비극됨을 알 수 있다. 넓게 보면 사회라는 공동체는 작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또 다른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생전 오

---

8) Frederic I. Carpenter, *Eugene O'Neill* (New Heave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64), p. 48.

닐은 미국의 격동기와 혼란기에 정치적, 사회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작가로 비추어졌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가 그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론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관계속의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당시 혼란스런 사회의 모습과 비극성을 그의 작품 속에 대변하였다.

그의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오늘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그 경험에 비롯된 절망, 방황, 그리고 희망, 구원의 모습까지 그의 삶 전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와 갈등 표출의 주제로 흐르게 된다.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마약 중독 등의 문제로 안정된 가정에서의 유년기를 보낼 수 없었던 오닐은 어린 시절 카톨릭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엄격한 카톨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의심하기에 이른다. 1903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이후 상점의 점원, 기자생활, 해양 생활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다양한 인생을 체험 하게 된다. 이때 그는 Jack London, Kipling, Conrad 등의 작품을 읽고<sup>9)</sup> 모험과 여행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과 방황, 갈등의 체험들은 그로 하여금 신을 부정하게 하고 비관주의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러나 인생을 비관적인 것 자체로 보는 시각보다 비록 세상은 인간에게 비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살아 볼 가치가 있다<sup>10)</sup>는 낙관론적인 비관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오닐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늪에서 시작되어, 그 운명에 의해 이어진 여러 관계 사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절망적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그의 대표적인 자서전적인 소설인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는 그의 말기 작품으로 리얼리즘의 면모가 나타나며, 과거와 현재의 인과 관계가 강조되는 자연주의 요소도 보여진다. 그의 관심은 삶의 여정 속에서 고립되고 무엇인가에 추적당하며 이상적

9) 김용덕, 『미국희곡의 이해』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p. 31 참조.

10) Sophus Keith Winther, *Eugene O'Neill : A Critical Study*(New York :Russel, 1962), p. 211.

인 목표와 종교적 신앙을 상실한 인간들의 비극을 Tyrone가의 네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여 보여준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결과에 책임이 있으나, 이것은 한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닌, 상호 관계속의 공동적 운명의 희생자로서 스스로의 삶과 비극은 가족 각자 간에 영향을 주며 실타래처럼 묶여있다.

하지만 오닐은 “비극적인 것이야 말로 참된 진실(眞實)과 미(美)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삶의 의미이자 희망”<sup>11)</sup>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Tyrone 가족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이 작품의 제목과는 역설적으로 밤으로 가는 수동적인 여정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을 찾기 위한 인간의 의지에 따른 능동적인 여정임을 알리고 있다.

미국 희곡의 초기에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 미국 희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오닐은 그의 자선적인 요소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갈등과 비극에 관한 문제 등 지금까지 아주 다양하게 연구 되어 왔다. 대표적인 그의 작가 정신과, 작품의 방향은 크게 부정할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고전의 대표작가로서의 그의 작품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의 비교 분석은 아직도 연구 되어질 과제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 가정의 배경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반복과 갈등에 대한 극복의 과정을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1) Gelb, *op. cit.*, p.5. 참조



### III. 가족 간의 비극적 갈등의 성격

#### A. 현실도피

이 작품은 오늘이 그의 아내 Callotta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눈물과 피로 쓰여진 그의 가족의 과거사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가정이라는 사회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로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와 극복의 과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 관계이다. 오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가족의 관계속의 갈등과 비극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역할,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유형들을 보여 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극은 1912년 8월 어느 날 오전 8시 30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한 Tyrone가의 여름 휴양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Tyrone 집안 내에서 가족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일어나는 반복적이며,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를 보여준다.

『밤으로의 긴 여로』 그것은 정확하게 즉 긴(4시간의 긴 공연시간으로서, 끝이 없기에 긴, 반복적이기에 긴, 고통스럽기에 긴), 하루(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자정까지의 타이론가의 일생의 하루, 생에서의 어떤 하루이자, 그 하루), 여로(낮부터 밤까지의 여행, 시간 속으로의 여행, 원인에 대한 탐색의 전후 과정이며, 삶을 관통하는 순례), 밤(연극의 밤, 꿈속의 밤이자 죽음)이다.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is exactly that; long(four hours' plying time, long because endless, long because repetitive, long because painful), day(the day of the play 8:30 a.m. to midnight a day in the life of the Tyrones, a day in life, the day of life), journey(a trip from day to night, a trip in time, both forward and backward—a quest for cause, a pilgrimage through life), night(the night of the

play, the night of dreams, death).<sup>12)</sup>

즉 이 극은 하루에서 자정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그 시간 속에서 그려지는 시간은 가족의 일생에 해당이 되는 긴 시간의 여행이다. 이 가정의 긴 여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연관 관계에 의해 발생하고 진행되어진다.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비극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들은 그들의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들의 미래까지도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속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비극의 원인은 현실에서 환상과 과거로의 도피이다. 오닐의 후기 극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심 중의 하나는 환상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들에게 환상은 고통받은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잊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수단이며, 또한 인간의 기본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극에서 보여 지는 현실 도피적인 인물의 성향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다시 말해 살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의 의미로 역설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오닐의 다른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현실의 삶과 유리된 지평선 너머의 신비스러운 미, 즉 희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Tyrone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족들은 저마다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있는데, 극이 전개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비극의 원인을 탓하며 더욱 더 해결하기 힘든 양상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또한 이들은 비록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들의 현실도피적인 성향임을 오닐은 제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감싸 안아 주고 치유하려는 노력보다도, 시종일관 현실을 부정하고

---

12) Norman Berlin, *Eugene O'Neill* (New York: Grove Press, Inc., 1982), p. 1.

자신의 과오를 회피하며, 서로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은 어머니 Mary이다. 1막이 시작하자 가족들은 모여서 Edmund의 병을 걱정한다. 그들의 대화는 전 날 잠자리의 코고는 소리 등 일상생활을 주제로 가볍게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모습에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위선적인 분위가 강하게 보여 진다.

메리    에드먼드가 하는 말에 마음 쓰실 것 없어요. 아픈 애잖아요. 여름 감기에 짜증 안 날 사람이 없지.

제이미    쟀 그냥 감기가 아네요. 꼬맹이는 심각하게 아프다고.

Mary    You must not mind Edmund, James. Remember he isn't well. A summer cold makes anyone irritable.

Jamie    It's not just a cold he's got. The Kid is damned sick. (26-27)<sup>13)</sup>

Edmund의 병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폐병임을 알고 James와 Jamie는 그를 걱정하지만, Mary는 그의 심각한 병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극이 전개되면서부터 Mary는 시종일관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보인다. 항상 꿈꾸는 듯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만의 생각에 빠지고, 지나치게 주위의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며,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는 마약 복용을 멈추지 못하고 중독의 증세를 보이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Mary는 현실의 고난이나 불행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와 환상에 의도적으로 현실을 망각하려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다. 과거 그녀의 어린 시절의 안락함과 행복했던 기억만을 반추하며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남편 James의 인색함을 원망하고 아들 Eugene의 죽음을 Jamie의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책감에서 회피하려 한다. 또한 의지가 약한 자신의 문제로 심각해진 마약 중독은 Edmund의 출생 때문이라고 탓한다.

---

13) Eugene O'Neill,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p. 17. 이후 본문 인용은 ( )속에 쪽수만을 표기함.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그녀는 마약의 힘을 빌려 과거로의 환상에 빠져들고, 남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며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그녀는 현재의 자신의 실체보다는 과거에 더욱 집착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과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Mary가 집착하는 과거에 대해 오닐은 “현재는 피상적인 가치들로 혼합되어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과거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매우 잘 알 수 있기에 과거의 삶을 쓴다”라고 말했다. 14)

Brustein은 오닐이 말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능가하는 과거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를 증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시간과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쓴다.

Hating the present, fearing the future, he withdraws into the past, and writes his plays on the theme of time and memory.<sup>15)</sup>

James, Mary, Jamie, Edmund 모두 자신이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이상과 희망이 있으나,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잊기 위해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의 문제들을 잊고자하는 Mary에게 가족들은 그녀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노력한다.

메리       그만, 지난 일 들추지 마.

에드먼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에겐 잊는 게 약이 아니예요.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항상 조심하죠. 그때 어떤 일

---

14) Gelb, *op. cit.*, p. 873.

15) Robert S. Brustein, *The Theatre of Revolt*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4), p. 30.

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도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러는 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예전 모습 그대로 계신 게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끔찍한 일이…….

Mary Don't. I can't bear having you remind me.

Edmund Don't take it that way! Please, Mama! I'm trying to help. Because it's bad for you to forget. The right way is to remember. So you'll always be on your guard. You know what's happened before. God, Mama, you know I hate to remind you. I'm doing it because it's been so wonderful having you home the way you've been, and it would be terrible — (46)

과거에 숨어서 현실을 망각하려하는 Mary에게 Edmund는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는 생존을 위해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의 환상에 집착하는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과거의 일을 도피 수단인 환상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직시하여 현실과 미래에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진심 어린 외침 이었다. 그러나 Mary는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환상에의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Mary는 그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한 모성애를 지니지 못했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허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녔다. D. Alexander는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어머니(mother-child)”라고 부른다.<sup>16)</sup>

메리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과거는 바로 현재예요. 안 그래요?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인생은 그걸 용납하지 않죠.

Mary Why? How can I? The past is the present, isnt it? It's the future, too. We all try to lie out of that but life won't let us.

---

16) Doris Alexander, *Eugene O'Neill's Creative Struggle* (The Decisive Decade, 1924-1933.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pp. 26-27 참조.

자신이 원치 않았던 대로 흘러가는 현실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며 계속해서 비극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Mary는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게 된다. 그녀는 가족들의 비난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꿈꾸었던 과거의 세계에 의지하며 마약에 중독된 채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한 모습은 그녀 자신 뿐 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도 비극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다. John Henry Raleigh는 Mary에게 있어서 마약은 ‘a road back to that virginal childhood.’로 여긴다.<sup>17)</sup> 결국 그녀는 안락함을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수녀원에서의 삶,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소녀시절의 꿈 등 그녀의 유년시절의 기억에 갇혀 버린 것이다.

Mary가 마약을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극 중 배경으로 등장하는 안개는 현실을 잊고 도피하고 싶은 환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비단 Mary에게 뿐만이 아니라 Tyrone집안 가족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분위기의 요소로서 안개와 무적이 사용된다. 오닐은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아울러 극에서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 극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짙어져 가는 안개는 단순히 자연배경으로서의 역할 만이 아니라 T. Bogard가 “Everything is in the action as the fog becomes the physical evidence of the isolation of the Tyrones.”<sup>18)</sup>라고 지적처럼 가족들 간의 소외와 인물들에게 꿈과 환상을 유발시키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이 극의 핵심적인 상징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3막에서 Mary는 하녀 Catherleen과 대화에서 안개에 대해 말한다.

메리    안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가려주고    세상을    우리로부터  
          가려주지.    그래서    안개가    끼면    모든    게    변한    것    같고    예전  
          그대로인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무도    우리  
          를    찾아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지.

17) John Gassner, *O'Neill* (N.J. Prentice - Hall, 1964), p. 132.

18) Travis Bogard, *Contour in Time : the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131.

Mary It hides you from the world and the world from you. You feel that everything has changed, and nothing is what it seemed to be. No one can find or touch you any more. (100)

이는 Mary의 심적 상태를 안개를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안개는 1막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2막 3막으로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짙어져 간다. Mary에게 있어서 “안개는 상상의 영역이며 동시에 마약에 빠져있는 그녀의 꿈의 영역(fog is a field of imagination and her dream that she is poisoned dope)”<sup>19)</sup>이다. 4막에서 안개는 더욱 더 짙어져 간다.

반면에 무적소리(foghorn)는 안개와는 상반되는 효과를 가진다. 무적소리는 안개를 통한 도피에서 견딜 수 없는 현실 생활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음향 효과이다. 안개가 포근하며 과거로의 도피수단의 심정을 나타내는 반면 무적소리는 현실로의 회귀를 불러오는 수단이 된다. Mary에게는 현실로의 회귀가 고통스러운 삶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그녀에게는 더욱 더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현실 도피의 성향은 Mary뿐만 아니라 Edmund에게도 찾아 볼 수 있다. 4막에서 Edmund는 James와의 대화 도중 자신의 해상 경험을 이야기 한다.

에드먼드 그때 황홀한 해방의 순간이 온 거예요. 평화, 탐색의 끝, 마지막 항구, 인간의 더럽고 비참하고 탐욕스런 공포와 희망과 꿈을 초월한 성취가 주는 환희! 그런 순간들은 몇 번 더 있었죠. 바다 멀리 헤엄쳐 나갔을 때, 해변에 홀로 누워있을 때에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태양이 되고, 뜨거운 모래가 되고, 바위에 붙어 파도에 흔들리는 초록의 해초가 되는 거죠. 성자들이 보는 지복(至福)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만물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

19) Rolf Scheibler, *The Late Plays of Eugene O'Neill* (Basel: Franke Verlag Bern, 1970), p. 131.

Edmund Then the moment of ecstatic freedom came. The peace, the end of the quest, the last harbor, the joy of belonging to a fulfillment beyond men's lousy, pitiful, greedy fears and hopes and dreams! And several other times in my life, when I was swimming far out, or lying alone on a beach, I have had the same experience. Became the sun, the hot sand, green seaweed anchored to a rock, swaying in the tide. Like a saint's vision of beatitude. Like the veil of things as they seem drawn back by the secret. (156)

Mary가 가족들과의 얽힌 일상생활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과거로 도피하려고 하는 반면, Edmund의 환상은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의 생존 문제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경험과 자연에 도취되는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는 해상에서의 선원 생활을 통해 고독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알게 되었고, 바다를 통하여 우주의 신비를 체득하고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 바다는 'spiritual mystery and infinity'<sup>20)</sup>를 상징하는 것이다. Edmund의 이런 해상 생활의 체험담을 통해 그도 인생의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환상의 세계를 그가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dmund의 환상이란 부정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방편이기도 한 Mary의 도피와는 다른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Edmund도 안개 속에 도피하여 평화를 찾는다. 안개를 통해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한다.

Mary와 Edmund뿐만 아니라 James와 Jamie에게도 현실 도피적인 성향은 나타난다. James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 또한 젊은 시절 유망한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포기하며 후회한다. 과거에 집착

---

20) Wilfred L. Guerin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New York : Harper and Row, 1979), p. 158.



하고 후회하면 할수록 그는 그런 현실을 잊기 위해 더욱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그의 몰욕은 Mary에게 원하는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어 이는 가족 간의 비극적 상황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Jamie는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아버지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며 동생의 재능을 시기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런 현실을 잊기 위해 술과 창녀에게 빠져 생활한다. 술과 창녀에 빠져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모성을 대신하며 그는 현실에서 도피한다.

Tyrone 가족들은 낮에서 밤, 희망에서 절망, 밝음에서 어둠으로의 여행인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각자의 고통스런 현실에의 도피를 시도한다. Tyrone가의 가족들의 생활은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과거로 돌아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각자의 통로를 통해 현실을 도피하지만, 곧 그들은 깊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동정하며 이해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Tyrone 가족들은 철저히 자신 스스로에게 고립되어 분단된 자아 속에서 비극적 인생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각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과거와, 환상에 집착하게 된다.

이 같은 등장인물들의 현실 도피를 두고 Carpenter는 Tyrone 가족들은 각기 다른 “밤으로의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는 그것은 약물과 꿈의 안개 속으로의 슬픈 여행이고, 제이미에게는 냉소와 절망이란 밤으로의 희망 없는 여행이고, 아버지에게는 지난 날의 영광이란 올바르지 못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 비극적 여행인 것이다.

For the mother, it is a sad journey into the fog of dope and dream.  
For Jamie, it is a hopeless journey into the night of cynicism and desperation. For the father, it is a tragic journey down the wrong road, away from an earlier triumph.<sup>21)</sup>

즉 가족들은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 현실을 도피

---

21) Carpenter, *op. cit.*, pp.162-163.

하고 이는 고통 속에서 생존의 수단으로 현실도피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가족들은 현실적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황이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여주며, 보다 나은 현실과 미래의 꿈을 위해서는 과거를 똑바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부딪쳐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B. 소속감의 상실

이 작품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인 소속감의 문제는 오닐 자신의 실제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닐은 일반 가정이 아닌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호텔에서 태어났다. 순회 극단의 연극배우인 아버지의 직업적 이유로 전국을 떠돌며 호텔을 전전하며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안정된 가정이 없었고 정착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가 없었고,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유모인 Sarah Sandy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은 그에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환경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일곱 살 때부터 카톨릭 기숙학교인 Mount Saint Vincent에 들어가지만 그는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친구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한 고독함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기숙학교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에 가야할 때가 왔다. 그는 거기에서 들어갔고, 어린 오닐은 거기에서 수줍어하고 당황한 아이로 남았으며 낯설은 아이들과 소외감속에서 상실감을 느꼈으며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가 받은 상처는 깊었다. 그는 배신감과 속았다는 느낌이였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무정하고 잔인하게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성탄절에 다른 모든 아이들이 집에 가버렸을 때 더욱 무섭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오직 유진만이 홀로 남았다.

The time came to go to Mount Saint Vincent. He was taken there and left a shy, bewildered boy who felt lost and frightened among the strange children. The hurt went deep. He felt that he had been

betrayed, cheated; that those he trusted most had senselessly, cruelly rejected him. The feeling of rejection was hideously substantiated when Christmas came and all the other children went home. Only he, Eugene, remained alone.<sup>22)</sup>

어린 시절 떠돌이 생활과,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 겪었던 기숙학교에서의 경험은 가족의 따뜻한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에게 심리적으로 깊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자리 잡게 만든다. 특히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애정의 상실은 그의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을 만드는 지배적인 원인이 된다.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소속감 상실의 주제도 이러한 그의 가정 환경적인 원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오닐의 어린 시절 그에게 거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왔던 유모 Sarah Sandy는 오닐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대신 때때로 그녀가 오닐을 데리고 그녀의 친척들에게 가서 놀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순회공연중일 때는 그를 데리고 수족관, 동물원, 씨커스 공연장 등지에 가서 그와 놀아 주기도 했다<sup>23)</sup>는 Gelb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가 느꼈던 가정의 상실감은 근본적인 인간의 소속감의 상실로 이어져 Mary와 Edmund라는 인물을 통해 작품 속에 절실히 드러난다.

작품 속에서 어머니 Mary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가장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인물이다. 1막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사소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Edmund의 병을 걱정한다.

에드먼드   그래도 뉴욕 호텔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 여기가 꽤  
                  마음에 들어요. 아마 우리가 가져본 집이라곤 여기뿐이라서  
                  그럴 거예요.

메리       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잘못되었

---

22) Doris Alexander, *The Tempering of Eugene O'Neill*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 23-24.

23) Arthur & Barbara Gelb, *O'Neill*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p. 61.

으니까. 순 싸구려로 지은 집이야. 네 아버지는 집을 제대로 꾸미는데 돈을 쓴 적이 없어. 여기에 친구가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손님을 초대하기도 부끄러운 집이니까. 하기가 네 아버진 집안 끼리 가깝게 지내는 건 좋아하지도 않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저 클럽이나 술집에서 남자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어울리는 거나 좋아할까. 네 형이랑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닳은 아니자만. 여기 살면서 점잖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너희 둘도 얌전한 아가씨와 사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Edmund Well. it's better than spending the summer in a New York hotel, isn't it? And this town's not so bad. I like it well enough. I suppose because it's the only home we've had.

Mary I've never felt it was my home. It was wrong from the start. Everything was done in the cheapest way. Your father would never spend the money to make it right. It's just as well we haven't any friends here. I'd be ashamed to have them step in the door. But he's never wanted family friends. He hates calling on people, or receiving them. All he likes is to hobnob with men at the Club or in a barroom. Jamie and you are the same way, but you're not to blame. You've never had a chance to meet decent people there. I know you both would have been do different if you'd been able to associate with nice girls instead of

-(45)

Edmund는 호텔을 떠돌던 생활을 생각하며 별장은 적어도 자신들이 가져본 유일한 집이라며 그동안의 안정되지 못한 삶을 불평하면서도 현실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Mary는 공연이 시작하면 또 떠나야만 하는 별장은 집이 아니라며 안정된 가정을 제공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형성하기 힘들게

한 James를 비난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Jamie와 Edmund도 또한 집이라는 정착된 환경의 부재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메리 네 아버지는 외출이라도 하지. 술집이나 클럽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잖아. 너랑 네 형도 친구들과하고 어울리고. 다들 나가는데 나만 혼자야. 항상 혼자란 말이야.

Mary Your father goes out. He meets his friends in barrooms or at the Club. You and Jamie have the boys you know. You go out. But I am alone. I've always been alone. (47)

Mary는 자신만이 항상 혼자이고 가족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Mary가 중심이 되고, 가족들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Mary를 걱정하고 동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James는 남편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의 회복을 바라며 노력하고, Jamie와 Edmund도 늘 어머니의 마약 중독을 걱정하는데도 시종일관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 외로움의 원인이 안정된 가정의 부재라며 소속감의 부재를 불평한다. 이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그녀의 나약하고 의존적인 본성에도 이유가 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성장하고 수녀와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그녀는 연극배우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단순히 James의 멋진 배우의 모습만을 보고 결혼을 선택하였다. 연극배우로써 화려한 모습 뒤에는 늘 순회공연을 떠돌며 술을 가까이 해야 하는 James의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보호막으로서의 남편을 기대하는 꿈을 꾸는 처녀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순회공연 중의 배우생활의 어려움, 남편을 따라 다니는 과정에서 겪는 고독, 아이들 해산과 양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을 Mary는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해결하고 극복해야 했으나, 그녀는 그러한 극복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불행한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런 나약한 성격의 Mary에게 떠돌아야만 했던 불안한 삶은 그녀의 소속감을 상실하게 한 중요한 비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yrone가의 비극에서 Winther는 이 극의 가정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극의 전체적인 의미는 가정의 상실과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한 주체로 짜여져 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주된 영향력과 작가의 통합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The total meaning of the play is woven into the lost home, and the home that was never found. It stands as one of the major influences upon the life and total philosophy of the dramatist. <sup>24)</sup>

이러한 상실감과 소속감의 부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 오닐 자신이 절실하게 느꼈던 감정이다. 오닐이 집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으므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일반 사람들이 갖는 정서도 배우지 못했다. 이러한 심리가 그의 작품들에 불행과 비극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Mary는 이런 오닐의 고독한 심리를 가장 비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메리 내 잘못이었어요. 유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우겼어야 했는데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설득에 못 이겨 달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새로 아이를 가지면 유진을 잊을 수 있다고 아이를 갖자고 우겼을 때 거기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때 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집에서 낳아야 한다는 걸, 여자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Mary It was my fault. I should have insisted on saying with Eugene and not have let you persuade me to join you, just because I loved you. Above all, I shouldn't have let you insist I have another baby to take Eugene's place, because you thought that would make me forget his death. I knew from experience by

---

24) Sophus Keith Winther, "O'Neill's Tragic Themes :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Arizona Quarterly, XIII, 4.(Winter, 1957), p. 302.

then that children should have homes to be born in, if they are to be good children, and women need homes, if they are to be good mothers. (90)

어린 Eugene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 Edmund를 낳았지만, 제대로 된 가정이 없었기에 그녀의 기대만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음을 Mary는 후회한다. 그녀에게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의존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기는 했으나, 가정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함은 한 가족이 제대로 생활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가정은 가족의 울타리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며, 이런 안정감은 사람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극에서 가족들은 늘 불안해하며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잘못을 떠넘기며 서로를 비난한다. 이는 가정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Mary의 심리가 그녀의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식들 또한 모성애의 부족에서 불안해하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헤매게 만든다.

Edmund 또한 자신의 소속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는 자신의 출생 때문에 Mary가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불운한 태생(misbegotten)이라고 자책한다. 이로 인한 소속감의 상실로 강한 자기부정 심리와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괴로워한다. 외관상은 “어머니의 아기, 아버지의 귀염둥이!”로 보이나 그는 항상 고독하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Edmund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의 소속감을 상실한 불안함은 그의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에드먼드 전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갈매기나 물고기로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인간이 되는 바람에 항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진정으로 누구를 원하지도, 누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어디 속하지도 못하고, 늘 조금은 죽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Edmund It was a great mistake, my being born a man, I would have been much more successful as a sea gull or a fish. As it is, I will always be a stranger who never feels at home, who

does not really want and is not really wanted, who can never belong, who must always be a little in love with death!(157)

James와의 대화중에 Edmund는 해상 활동을 회상하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머니에게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못해 죽음을 동경하기 까지 이른 그의 불안한 비극적인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에게 바다는 동경의 대상이며 불행한 그의 현실의 탈출구였다. 거친 선원의 생활에서 노동과 술과 창녀 등의 밑바닥과도 같은 경험을 하였지만 그에게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살아야 하는 생존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그에게 바다의 이미지는 안개와 같은 평온함과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는 신비한 대상이 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웠고, 늘 자신의 소속을 의심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 그는 그런 삶에 피해자로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삶을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고, 해상활동에서의 신비한 경험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한 현실 도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이상주의자로서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Mary와 Edmund를 중심으로 이 극에서 나타나는 소속감의 상실과 외로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비단 Mary와 Edmund뿐만 아니라, James와 Jamie도 각자 나름대로의 소속감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 특히 Jamie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하지만, 모정의 정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에도 부흥하지 못하면서 가족 중에서 가장 외로움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부정적인 성향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끊임없이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지만 늘 행동은 반대로 나타나며 가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어쩌면 그는 Mary 못지않게 극중에서 비극적인 인물일 것이다.

오늘이 뼈저리게 느꼈던 소속감 상실에서 오는 불안정함은 이 극에서 중요한 비극의 요소로 등장하며, 이런 비극의 원인이 가족 간에 어떻게 작용하여 확대되고 발전하는가를 다음 장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하겠다.



## VI. 갈등의 극복과정

### A. 부부간의 애증

인물 개인의 인과관계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그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 여기서는 James와 Mary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비극적 상황으로 전제되는가를 짚어보겠다.

오늘의 비극적 인간관계에 따르면 인간은 악의적이고 무자비한 운명의 지배 하에 놓여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인 불가사의의 힘(The impelling, inscrutable forces behind life)”<sup>25)</sup>에 이끌려 다닐 뿐이다. 무의미, 무가치한 세계에 놓여있는 인간은 두꺼운 고립의 벽에 둘러싸인 채 소속될 곳을 찾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비극을 Ernest Griffin은 “the tragedy of isolated being”<sup>26)</sup>이라고 규정하였다. James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힘에 의해 가난한 삶을 살아오며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 Mary는 끝없이 외로워하며 스스로를 고립된 인생이라며 외로워한 인물이다. 이 부부는 그들의 결합을 부부간의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애증의 표본으로 인지하고 있다.

Tyrone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James의 물질욕에 의한 인색함과, 어머니 Mary의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자 개인이 타고 난 부정할 수 없는 운명의 요인과 그 운명의 굴레에서 야기되는 부부관계의 갈등은 단지 둘의 인생 뿐 만이 아닌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극의 초반에 애정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오늘의 후기 극에서 음모와 책략을 갖지 않고 순수한 애증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은 Mary-James 부부 뿐이다. 이들의 관계는 음모와 책략이 없으며, 냉소

---

25) Oscar Cargill, N. Bryllion Fagin, William J. Fischer, ed. *O'Neill and his plays : Four Decades of Criticism*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1), p. 100.

26) Ernest G. Griffin, *Eugene O'Neill : A Collection of Criticism* (New York : McGraw-Hill, 1976), p. 2.

와 야유의 잔인함도 없다. 그들은 가벼운 불평과 달랠, 그리고 이해와 사랑을 확인하는 등 가벼운 가족애를 형성한다.

인간은 그 자신의 운명의 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모든 힘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이며,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외적인 힘을 의식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 힘으로 하여금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투쟁, 이는 오닐의 극에서 피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이 되고 따라서 내면적 삶의 탐구가 오닐극의 근원을 이룬다.<sup>27)</sup> Mary는 이 작품에서 갈등의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녀의 비극적인 내면의 탐구는 그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주로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Mary는 남편 James에게 물질에 눈이 멀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다가도 자신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남편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남편의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부부는 힘든 시련의 현실에 맞닥뜨려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모습을 사랑으로 지켜본다.

1912년 8월 어느 아침, Tyrone 가족의 여름 별장 거실에서 시작하는 이 극은 초반부에서는 두 부부의 애정 어린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약간은 포장된 듯한 부부의 애정의 모습은 항상 행복하지 않은 않았던 어두운 과거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어 준다.

한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것이며 여전히 눈길을 끄는 미모이다. 그러나 건강한 몸매와는 달리 얼굴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말랐고, 핏기가 없이 창백하다. 그녀는 잠시도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손가락이 길고 끝으로 갈수록 가는 것이 한때는 아름다운 손이었겠지만, 관절염으로 마디가 울퉁불퉁 해지고 손가락이 뒤틀려서 이제는 흉하고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She must once have been extremely pretty, and is still striking. She does not match her healthy figure but is thin and pale with the bone structure prominent. Her hands are never still. They were once

---

27) Murray Hartman, "Strindberg and O'Neill ", *Educational Theatre Journal* 18 (Oct. 1968), p. 217.

beautiful hands, with long, tapering fingers, but rheumatism has knotted the joints and warped the fingers, so that now they have an ugly crippled look. (12)

Mary는 나이에 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지만, 그녀의 외모와 행동에는 불안함과 우울함이 가득하다. 그녀는 부유한 카톨릭 가정의 딸로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 속에 안정된 성장기를 보냈다.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특히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그늘 안에서 자란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보호만을 받고 살아와서,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나가는 도전정신이 결여된 소심한 성격으로 성장한다. 작품 속의 그녀의 외모 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때는 매우 아름다웠던 외모는 지금에 와서는 어딘가 모르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온몸에 배여있다. 이에 반해 남편은 건장한 미남의 모습으로 땅에 집착한다. 그는 나이가 들고 인색해 보이기에는 하나 강한 인상을 풍기는 가장의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타이런 (발끈해서) 누가 그렇대? 하지만 땅은 땅이야. 땅이 월 가사기꾼들의 주식이나 채권보다야 안전하지, (그런 다음 달래듯이) 아침부터 그런 얘기로 옥신각신 하지 맏시다.

Tyrone (Huffily.) I've no such idea. But land is land, and it's safer than the stocks and bonds of Wall Street swindles. (Then placatingly.) But let's not argue about business this early in the morning. (16)

Mary는 남편이 새로이 사들인 부동산에 관해 언쟁을 벌이면서 그녀는 땅에 대한 남편의 집착을 지적하지만, 남편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 대화에서도 James의 성격은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아일랜드 이주민으로 미국사회에 정착할 당시의 가난과, 고통, 절망을 경험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 그에게 물질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피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목적임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러한 James의 돈에 대한 집착은 내성적이고 심약한 성격의 Mary에게 인색함으로 다가와 이 문제는 이 가정의 큰 갈등의 원인이 된다. Carpenter는 이러한 James의 모습을 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면서도 당시의 시대 배경 상 그러한 James의 모습은 당연하고 검소한 미덕이라고 여긴다.

James Tyrone의 극중 모습은 부동산에 집착하며 가족의 편리와 건강은 조금 등한시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삶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세운 가정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된다. 스스로도 배우라는 화려한 직업에 걸맞지 않는 남루한 옷을 걸치며, 집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인색하다. 이는 인색한 수전노의 이미지 보다는 힘들었던 당시 사회의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다. 게다가 극중에서는 이런 James의 인색함이 과장되게 표현됨으로써, 이는 당시 미국의 지나친 물질주의를 비난하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사회와는 시대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현대 사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산업화는 가속화 되어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같은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지나친 물질에의 집착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James의 인색함과 물질에의 집착은 가족의 의미와 또한 한 가정의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의 어쩔 수 없는 실용주의와 보호본능으로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역할로 해석 되어져야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James와 Mary는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형성하게 되고 부부 관계라는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애정 이외에 갈등을 겪게 된다.

메리 (경멸 어린 적대감이 얼굴에 스친다.) 하디 선생! 난 그 사람 말을 절대 안 믿어요. 성경책을 쌓아놓고 맹세를 한대도 말예요! 난 의사들이 어떤지 알아요. 의사들은 다 똑같아요. 환자를 붙잡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가리지 않죠.

Mary (A look of contemptuous hostility flashes across her face.)  
Doctor Hardy! I wouldn't believe a thing he said, if he swore

on a stack of Bibles! I know what doctors are. They're all alike. Anything, they don't care what, to keep you coming to them.(27)

Mary는 대화 도중 아들 Edmund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과거를 회상하며 당시 그녀의 담당의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과거 그녀는 Edmund를 낳던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의사는 그녀에게 마약을 투여했고, 그 때의 마약 시작이 지금의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Mary는 그 원인을 James가 지나친 수전노로 돈을 아끼기 위해 돌팔이 의사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마약 중독자가 된 이유는 돌팔이 의사의 처방보다도 Mary 자신의 성장환경과 성격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녀는 지나친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해결하며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출산 후에 마약을 통해 고통을 줄였다 할지라도 의학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에 이러한 처방은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 마약에 중독이 된 것은 Mary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Mary는 마약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던 부모를 대신할 배우자가 필요했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부모와 같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조건 적인 보호와 사랑을 기대하였고 이는 James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Carpenter는 이런 Mary와 James의 성장환경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Mary Tyrone is probably closer to actuality than any other character. Ellen Quinlan *O'Neill* had been brought up in the genteel, Victorian tradition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convent-reared girl, she was beautiful, innocent, romanticism and utterly unworldly. In fact she was the exact opposite of her future husband, who had been bred in the school of hard knocks, was experienced, practical, successful, and very sophisticated. 28)

Mary Tyrone의 실제 모델인 오닐의 어머니 Ellen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세상과 동떨어진 듯해 보였지만, 남편은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실용적이며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이다. 이러한 둘의 차이는 가족의 정착지인 집 문제로 심화 된다.

메리 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순 싸구려로 지은 집이야. 네 아버지는 집을 제대로 꾸미는 데 돈을 쓴 적이 없어. 여기에 친구가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손님 을 초대하기도 부끄러운 집이니까. 하기가 네 아버진 집안끼리 가깝게 지내는 건 좋아하지도 않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저 클럽이나 술집에서 남자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어울리는 거나 좋아할까.

Mary I've never felt it was my home. It was wrong from the start. Everything was done in the cheapest way. Your farther would never spend the money to make it right. It's just as well we haven't any friends here. I'd be ashamed to have them step in the door. But he's never wanted family friends. He hates calling on people, or receiving them. All he likes is to hobnob with men at the Club or in a barroom. (45)

Mary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초조해하며 불안해 한다. 이는 그녀에게 안정되고 정착할 집이 없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그녀는 소속감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불평한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지 모르는 인색한 James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한다. 이러한 불안한 Mary의 심리는 극중 등장하는 안개와 무적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극 초반부터 자욱하게 깊어지는 안개는 Mary에게 있어 소속감의 부재로 오는 불안함과 마약중독으로 인한 긴장감을 감춰주는 그녀에게 있어서 도피처로서의 역할과 행복했던 과거로 빠져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가끔

---

28) Carpenter, *op. cit.*, p. 23.

이러한 안개 속으로 도피를 차단하는 역할로서 과거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은 강하게 울리는 무적의 역할이다. 그러나 Mary와 James의 관계가 항상 원망과 갈등 관계로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메리 머르장머리 없는 건 바로 너야! 아버지 좀 그만 비웃어! 이제 용서 못한다! 넌 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해! 네 아버지한테도 허물은 있겠지.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 아버지 평생 열심히 일해 오신 분이야. 가난과 무지를 딛고 일어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셨어!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아버지를 칭찬한다. 그리고 설사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아버지를 비웃는다 해도 넌 그러면 안 돼. 아버지 덕에 평생 힘들여 일할 필요 없이 살아왔으니까. 제이미, 아버지도 이제 늙으셨어. 그러니 이해를 좀 해드려야지.

Mary It's you who should have more respect! Stop sneering at your father! I won't have it! You ought to be proud you're his son! He may have his faults. Who hasn't? But he's worked hard all his life. He made his way up from ignorance and poverty to the top of his profession! Everyone else admires him and you should be the last one to sneer at you , who, thanks to him, have never had to work hard in your life! Remember your father is getting old, Jamie. You really ought to show more consideration.(63)

2막에서 Mary는 James의 인색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를 비난했던 모습과는 달리 아들 Jamie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무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Jamie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기인했던 부분도 있다. Jamie는 모성애를 갈구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그 이유가 아버지의 인색함으로 어머니가 마약중독에 빠져들어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은 늘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으로 가정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떠도는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James의 인색함을 비난하고 원망하던 것과는 달리 이 대화에서 Mary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듯하다. James 역시 그의 의지가 아닌 그의 과거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짐에 의해 인색해 졌으나, 그런 인색함 또한 그에게 지워진 운명의 굴레 때문이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임을 Mary는 진심으로 인정한다. 이는 사실 Jamie 에게 하는 말이기 이전에 Mary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너무나 의존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자신에게 James라는 존재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전노 노릇을 한 안타까운 가장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Mary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이에게 원인을 돌리며 도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James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James를 원망하기만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본인을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James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ary는 James를 사랑하고 가장으로서 힘들었을 그의 삶을 받아들이지만, 그녀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다른 가치관을 지닌 그와의 실제 삶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James의 직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정된 집이 없어서 오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Edmund를 낳고 산고의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마약조차도 이후 그녀의 우울증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가 의지적으로 사용하여 중독의 상태까지 진행 되었지만,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의지 부족도 James의 인색함에서 기인된 행동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James의 가족에 대한 인색함도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였겠으나, 사실 그녀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그녀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녀의 결혼 전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도피한다.

타이런 여보! 제발 부탁인데,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제 그만둘 수 없겠소?

메리 난...제임스! 제발! 뭘 그만 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우린 서로 사랑해 왔어요!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우



리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말아요. 운명이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Tyrone Mary! Dear Mary! For the love of God, for my sake and the boys' sake and your own, won't you stop now?

Mary I — James! Please! Stop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James! We've loved each other! We always will! Let's remember only that, and not try to understand what we cannot understand, or help things that cannot be helped—the things life has done to us we cannot excuse or explain. (88)

James는 좀 더 현실적으로 Mary를 설득하며 그녀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를 부탁한다. 그는 인식하며 물질 욕이 강한 인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문제에 직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Mary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이러한 현실 자체를 부정하며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을 그녀가 개입할 수 없는 운명의 힘으로 돌린다. Mary의 성격은 이 작품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작가의 비극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원죄와 같은 운명의 굴레는 인간이 헤어나지 못 할 덧을 놓고, 인간은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운명이라는 굴레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자식이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보며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심어주는 것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절대적인인 비극으로의 몰락이 아닌 구원의 의미를 동시에 전달해 주고 있다.

메리 과거는 바로 현재예요, 안 그래요?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인생은 그것 용납하지 않죠.

Mary Why? How can I? The past is the present, isn't it? It's the future, too. We all try to lie out of that but life won't let us.

Mary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한다. 현실 도피의 도구로 그녀는 마약을 사용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더 강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며, 자신의 처녀시절을 그리워하고, James의 옳지 못한 배우자로서의 모습을 회상하며 과거로의 도피에 빠져든다.

메리     당신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타이런   그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당신을 언제나, 영원히 사랑해요, 메리!

메리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건 고백해야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줄 알았다면 절대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Mary    No. I know you still love me, James, in spite of everything.

Tyrone   Yes! As God is my judge! Always and forever, Mary!

Mary    And I love you, dear, in spite of everything. But I must confess, James, although I couldn't help loving you, I would never have married you if I'd known you drank so much.(114)

대화에서도 Mary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Mary와 James의 관계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고, 결혼 생활 중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된다. 그러나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바탕에는 깊은 애정의 감정이 동시에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소외감과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려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James와 Mary의 애증의 감정은 서로에게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질투와 원한의 자취들을 다 배설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새로이 정화되어 새로운 사랑과 이해, 동정과 연민의 인간애로 결속되는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부 관계에 있어 “미움은 진실로 사랑인 것이다”<sup>29)</sup>라는 Frazer의 모순된 관점도 인정할 만하다. 사랑과 미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한 인간의 보편적 심리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현상은 Mary와 James의 감정 표현을 규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애증의 감정은 모순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오닐의 창작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사랑과 미움은 상대적이다. 오닐이 이르려는 위대한 진실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하나의 큰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궁과 무덤사이에서 나타난 하나의 짓궂은 장난이겠지.

Love and hate opposites, whereas the great truth at which O'Neill arrives is that psychologically they result in the same thing. Life may be said to be one big copulation - a joke that goes on between womb and tomb.<sup>30)</sup>

Frazer의 지적처럼 애증의 병존 심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로 Mary와 James에게도 사랑과 미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4막에서는 주로 James와 아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 속에서도 Mary는 중요한 가족 문제의 화두로 부자간의 논쟁을 야기 시킨다. Edmund는 James가 Mary의 마약 중독 상태를 일찍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치료를 시키지 않았다고 James를 비난하자 James는 Mary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녀의 마약 중독을 알았을 때 수천달러를 쓰며 병을 고치려 노력했

---

29) Winfred D. Frazer, *Love as Death in the Iceman Cometh: A Modern Treatment of Ancient Theme* (Gainesville: Th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67) p. 34.

30) Frazer, *op. cit.*, p.35.

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늘 그 상태였다고 고백한다.

어머니의 마약 중독이 아버지의 인색함 때문이라는 비난에 James는 당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다. 그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병들게 한 원인으로 원망을 받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빠져든다.

타이런 한 가지 어머니가 겁내셨던 건 늙고 병들어서 양로원에서 죽는 거였지. 바로 그 시절에 구두쇠 버릇이 생긴 거다. 그때는 1달러가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 버릇이란 일단 몸에 배면 고치기가 힘들지. 자꾸 썩 것만 찾게 돼.

Tyrone Her one fear was she'd get old and sick and have to die in the poor house. It was in those days I learned to be a miser. A dollar was worth so much then. And once you've learned a lesson, it's hard to unlearn it. You have to look for bargains.(151)

그는 성장 시절 어린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고, 그러면서 몸에 밴 절약의 습관이 구두쇠 버릇으로 굳어지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설토했다.

실제 오늘 의 아버지인 James O'Neill은 실제로 극에서 묘사되어진 James Tyrone과 같은 수전노는 아니었다. 극중 아버지의 모습이 과장되게 설정되면서 그는 당시 사회의 물질주의를 비난하며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역설하려 했던 것이라 보여 진다. James도 어쩔 수 없는 가난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태어나 수전노의 습관이 굳어졌고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그의 인색한 습관들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큰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음은 틀림없는 것이었다.

James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Mary는 아내로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끊임없이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James의 인색함으로 인한 안정된 가정의 부재와, 항상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 세계를 도피하려는 Mary의 불안정한 심리는 부부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James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 가족의 비극의 한 원인이기도 하겠으나, 그 문제점을 심화시킨 것은 Mary의 현실도피의 심리이다. 결혼 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며 늘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 극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서 모든 갈등의 연결고리로서 존재한다.

현재의 사회에서도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비극성 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작품의 두 부부관의 관계를 돌이켜 보고 그동안 마주하지 못한, 인간이 가진 각자의 비극적이고 고통적인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문제점의 제시 뿐 만이 아닌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가정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사랑, 화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을 돌이켜 볼 수 있다.

오늘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이러한 비극의 유형을 보여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해결책을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것이다.

## B.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Mary의 마약 복용과 James의 인색함은 극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주요인으로써, Jamie와 Edmund의 성장 시기에 형성된 그들의 성격형성의 큰 배경이 되고 또한 두 아들의 비극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 개인의 성장 배경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으나, 그중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비극의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아버지 James와 두 아들 Jamie, Edmund의 부자 관계를 추적해 보며,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의 역할과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어머니 Mary와 두 아들간의 모자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  
1막 처음 식탁에서의 대화부터 부자간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서로에게 거부감을 드러낸다.

제이미 왜들 난리예요?

타이런 그래, 그만두자! 다 그만두고 다 피해 버려! 야망이라곤 없는 인간에겐 편리한 인생철학이지. 고작 하는 것이라곤...

Jamie What's all the fuss about? Let's forget it.

Tyrone Yes, forget! Forget everything and face nothing! It's a convenient philosophy if you've no ambition in life except to —(21)

아침을 먹는 시간에 James의 코고는 소리에 관한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소한 일에도 반감으로 보이며 반응하고, 이에 아버지 또한 아들의 인생철학까지 들먹이며 아들들을 비난한다.

James는 1막 처음 Mary에 대하여는 애정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애정과 이해보다는 질책과 비난의 감정으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타이런 그렇다고 진짜 부자는 아냐. 다 저당 잡힌...

제이미 그야 돈은 안 갚고 자꾸 사들이기만 하니깐요. 에드먼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땅덩어리였다면 돈 아까운줄 몰랐을 걸요!

타이런 암, 못 고치지. 그거야 네가 너무 잘 가르쳐줬지. 나는 이제 너 새사람 되는 거 기대도 안 한다. 감히 내 형편을 따져? 넌 1달러의 가치를 몰라!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야! 평생 돈 한 푼 저축한 적이 없으니까! 시즌이 끝날 때마다 무일푼이지! 주급만 나오면 창녀와 위스키에 다 써버리니까!

Tyrone That doesn't mean I'm rich. It's all mortgaged—

Jamie Because you always buy more instead of paying off mortgages. If Edmund was a lousy acre of land you wanted,

the sky would be the limit!

Tyrone No, you can't. You've taught me that lesson only too well I've lost all hope you will ever change yours. You dare tell me what I can afford? You've never known the value of a dollar and never will! You've never saved a dollar in your life! At the end of each season you're penniless! You've thrown your salary away every week on whores and whiskey! (31)

Jamie는 Edmund의 병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James가 돈 때문에 그의 병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James의 인색함을 비난한다. 이에 James는 책임감 없이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Jamie을 비난한다. 둘의 대화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계속된다. 작품 속에서 Jamie는 그리스극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자주 비교된다. 그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 중의 큰 부분은 Mary가 마약중독이 된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James의 인색함이 Mary의 마약중독과 Edmund의 병이 악화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강하게 James를 비난한다. 이에 반해 어머니 Mary에게는 애정의 모습을 보인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원했으나, 아버지의 직업과 인색함이 그들에게 집다운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어머니에게 소속감을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는 늘 불안해하면서 그 탈출구로 마약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조금은 일방적인 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성향과 유사한 면이 있다.

Jamie는 아버지 James와 마찬가지로 배우로서의 삶을 살았다. 환경적으로 극단생활과 연극에 익숙했고 성장할 때까지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연극배우의 삶이었지만, 그는 그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극배우의 직업을 권유한 James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둘의 큰 갈등 중의 하나는 James와 Jamie의 경제적인 개념, 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다. James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로 인해 돈에 강하게 집착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그러한 아버지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지 못하

고, 그와는 반대로 방탕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James는 자신의 경제관념을 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요했다. Jamie는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에 반감을 드러내며 의도적으로 그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의 갈등은 Edmund의 병이 결핵임을 알고 더욱 심화된다. James와 Jamie는 Edmund의 병 치료에 관하여 논쟁을 계속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Edmund를 싸구려 요양소에 보내려한다고 Jamie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에 James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이 Edmund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그를 나무란다. 어린 시절 Jamie는 영특하였으나, 20세에 이미 술주정뱅이가 되어 여러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한때 아버지 James를 닮은 예술가가 되려고 시도했으나, 그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한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Jamie는 유아기 때 막 태어난 동생 Eugene에게 흥역을 옮겨서 동생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Edmund에게는 술과, 여자를 알게 하는 등 나쁜 영향을 끼치며, 서른이 넘어서도 자립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Jamie에게 아버지는 항상 반감과 비난의 대상으로 그는 Mary와 Edmund의 비극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아버지 James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Jamie는 술을 통해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하면서, 그가 가진 내면의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부모에 대한 원망, 창녀에게 의지해서 찾은 감정적 안정 등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 이를 Manheim은 Jamie라는 인물을 물질보다는 감정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게으르지만, 감정적인 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그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물질적인 공급자로서, 특히 자신에 대한 공급자로서는, 그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감정의 공급자로서는 그는 완전히 성공했다. 한마디로 그는 오늘이 정직하게 인간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He is indolent, yet in emotional terms, no one works harder. As a material provider, especially for himself, he is a total failure, yet as an emotional provider, he is a total success. He is, in short, the means by which O'Neill is finally able to honestly celebrate man.<sup>31)</sup>

---

31) Michale Manheim, *Eugene O'Neill's New Language of Kinship*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2), p. 185.



James와 Jamie는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둘은 서로의 감정의 벽을 쉽게 허물지 못한다. Jamie는 실패한 인생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Jamie의 모든 허물을 보이면서, 또한 실패한 삶처럼 비치는 그로 하여금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도록 만든다.

James는 Jamie에게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Jamie는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한 아들에게 James는 아버지로서 그에게 따뜻한 울타리와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비난만 함으로 Jamie는 계속 더 방탕한 인생의 나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가족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돌리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부자간의 갈등의 중심에는 James의 인색함, 물질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그가 인색하게 된 배경에는 미워하고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Tyrone의 물질 추구는 식민지 시대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지녔던 꿈 이른바 “American Dream”이라는 것으로 신대륙 미국에서 제 2의 낙원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 꿈과 연관 지어 진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왔지만 내적으로는 물질의 탐욕으로 인간성 타락을 자초했다.

이처럼 미국의 번영을 꿈꾸던 “American Dream”이 오히려 정신적 패배를 자초한 점을 개탄하면서 오늘은 이 작품에서 Tyrone을 통해 현대 물질주의의 병폐를 고발한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실제 James의 모델인 오늘날의 아버지의 모습보다도 더 과장되게 물질에 탐욕스런 모습으로 묘사됨으로써 오늘은 당시 사회의 물질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James의 물질주의는 아들 Jamie에게 주로 비난받으며 전개되다가 Edmund와의 대화를 통해 화해의 양상을 보인다.

Jamie는 마땅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며 그의 돈을 다 탕진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Edmund는 신문사 일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 했다며 두 형제를 비교하며 Jamie의 방탕함과 무능함을 비난한다. 시종일관 Jamie에게는 부정적인 비난을 일삼았던 James는 Edmund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의 기대감과 동시에 그의 실패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아버지로서 처음 두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감은 비슷한 무게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 영특했던 Jamie에게도 교육열을 보이는 등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Jamie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 이에 비해 온순하고 아버지가 이루고 싶어 했던 예술적인 길을 걷고 있는 Edmund에게는 위안과 희망을 얻게 된 것이다.

James와 Edmund의 관계는 James의 인색함을 비난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Jamie와의 관계처럼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Edmund는 아버지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적인 환경을 이해하며 부자간의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Edmund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James와 Mary에게는 귀염둥이이며 사랑스럽고 온순한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늘 우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불안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Mary는 Edmund의 출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었다며 Edmund를 낳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이런 어머니의 자세는 Edmund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Edmund는 오늘 작가 본인의 화신으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Mary가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태어나자마자 죽은 형 Eugene의 대치 인물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는 자괴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 Jamie에게는 질투의 대상으로 한때는 Jamie와 같은 타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Edmund는 이 극에서 다른 구성원과는 달리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가족들과 화해하며 희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4막이 시작되면 Edmund가 외출에서 돌아오며 혼자 거실에 있는 James와 마주한다. James는 Edmund에게 현관 등을 끄라며 잔소리를 하고 이에 Edmund는 아버지의 지나친 인색함을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문학 취향을 이야기한다.

James는 셰익스피어를 동경하고, Jamie와 Edmund는 Baudelaire, Dowson, Poe, Ibsen, Zola, Wilde의 문학의 실존적인 견해를 좋아한다. 이런 문학적 견해 차이로 둘은 논쟁한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비판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단지 비난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계기가 된다. 서로의 쌓여있던 감정의 골을 털어놓으면서 Edmund는 그동안 가슴 속에 담고 있던 Mary의 마약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동안 대화의 단절로 서로의 마음속에 삭히고 있었던 원망이 서서히 드러난다. Edmund는 어머니 Mary의 마약 중독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물으며 James의 인색함을 비난한다. James 또한 당시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을 변명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가정의 비극들을 꺼내며 가슴 아픈 그들의 과거사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James는 아일랜드 이민자로 홀로 버려져 가족을 부양해야했던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를 회상하며, 당시 1달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이후 짠 것만 찾게 되고, 자꾸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세익스피어를 동경하면서도 돈에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여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역할만 고집하다가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잃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에드먼드 잘 말씀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를 훨씬 잘 이해하게 됐어요.

타이런 괜히 말했는지도 모르지. 네가 이 아버지를 더 경멸하게 만든 건지도 몰라. 게다가 이런 얘기로는 돈의 가치를 가르쳐줄 수도 없잖아. 쓸데없이 불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구나. 저 불 좀 꺼도 괜찮지, 응? 저것까지 켜놓을 필요가 어딴어. 괜히 전기 회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지.

에드먼드 그럼요. 끄세요.

Edmund I'm glad you've told me this, Pop. I know you a lot better now.

Tyrone Maybe I shouldn't have told you. Maybe you'll only feel more contempt for me. And it's a poor way to convince you of the value of a dollar. The glare from those extra lights hurts my eyes. You don't mind if I turn them out,

do you? We don't need them, and there's no use making the Electric Company rich.

Edmund No, sure not. Turn them out. (154)

James와 Edmund는 서로 쌓여있던 불만들을 토로하며,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가난한 삶으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인색함을 비난만이 아닌 이해로서 아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용서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1막에서 3막까지 비난으로 일색 하지만, 4막에서는 내면의 진실을 고백함으로 비록 불완전 하지만 화해를 이룬다. 그렇지만 화해와 용서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는다. 용서에 이르는 단계는 구체적으로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연관된 감정을 파악하기, 분노를 표현하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 얘기하거나 글을 쓰기, 빚을 청산하기, 화해의 가능성을 고려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sup>32)</sup> James와 Edmund도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며 시작하지만 이러한 힘든 화해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간다. 상호간 이해와 용서로 나아가기까지 그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들을 기억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고통은 결국 회복의 고통이 되었다. 상처를 직면해야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던 것이다.

아버지 James와 두 아들 Jamie, Edmund의 관계가 아버지의 인색함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에 의한 제약이 문제였다면, 어머니 Mary와 두 아들과의 관계는 Jamie와 Edmund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갈등양상과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어머니 Mary는 부유하고 안정되었던 어린 시절의 과거 기억에 집착하고 갇혀 사는 인물이다. 온순하고 심약한 성격으로 남에게 의지하려는 심리가 강하여 어릴 적 자신에게 헌신적이던 아버지와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남편과 가정을 꿈꾸었다. 그러나 연극 배우였던 James는 직업적 특징상 극단을 따라 떠돌아 다녀야만 했고, 그로 인한 안정된 가정의 부재로 인해 Mary는

---

32) David Stoop & James Masteller, *Forgiving Our Parents Forgiving Ourselves*, 정성준(역), 2001) p. 22 참조.

James를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마음 깊은 곳은 James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심약하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맞닥뜨려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현실을 도피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불안한 어머니의 모습은 Jamie와 Edmund의 성장 과정에서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Jamie의 부정적인 성격 형성의 근본 원인은 어머니 Mary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그는 공연으로 바쁜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으로부터 어머니를 데려가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에게 있어서 Mary는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James를 인식하는 통로였다.<sup>33)</sup>

어머니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겪은 Jamie는 신성모독과 술, 그리고 냉소로 삶을 지속한다. 그와 Mary의 모자관계는 사랑을 좇지만 잡히지 않는 메아리 와도 같은 관계이다. Jamie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 더 강한 애착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나 Mary는 어린 아들 Eugene의 죽음에서 얻는 죄의식과 불행의 원인을 Jamie의 탓으로 돌리고 그를 미워한다. James의 공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Eugene에게 당시 흥역에 걸렸던 Jamie가 어린 동생을 시기하여 일부러 흥역을 옮겨 결국 죽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Mary는 Eugene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다가 결국은 어린 Jamie가 시기심에 일부러 아이를 죽게 했다면 그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동생의 죽음 후 당시 7살이었던 어린 Jamie가 받았을 충격과, 또한 그 후 Mary 자신의 원망으로 인해 받아야만 했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 도피하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Berlin역시 극중 Jamie의 성격이 어머니 Mary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쓰고 냉소적인 그의 전 생애는 그의 어머니의 상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어머니의 마약 중독에 대한 가장 지독한 그의 말은 ‘미친 장면, 오 필리아 등장’, ‘마약쟁이는 어디 있어’ 같은 말인데 이는 그의 실망이

---

33) Stephen A. Black, *Eugene O'Neill-Beyond Mourning and Tragedy* (New He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52-53.

아주 컸기 때문이다. 그의 상습적인 음주는 어머니의 마약중독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에드먼드에게 이번에 어머니께서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다.

Bitter and cynical, his whole life seems to depend on the condition of his mother. His are the most terrible comments on her dope addiction - 'The Mad Scene. Enter Ophelia.' 'Where's the hophead?' - because his disappointment is the greatest. His heavy drinking is linked to his mother's dope addiction. He tells Edmund: '... this time Mama had me fooled.<sup>34)</sup>

Jamie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만큼 역설적으로 어머니를 비난한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Hamlet*에 나오는 미친 여자 Ophelia를 Mary에 비유하면서 그의 절망과 실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갈구는 그녀의 마약 재복용이라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자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고통으로 괴로워한다. 그는 술과 창녀로 세월을 낭비하는 방탕아로 변해가고 Mary의 모성의 대용으로 상처를 대신할 수 있는 창녀에게 위안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Jamie에게 Mary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그의 타락의 원인이 James때문이라면서 그를 보호하고 두둔하는 듯하지만, 이는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Mary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것에 불과하다.

James의 Jamie에 대한 비난에 Jamie를 변명하는 중에도 그녀는 모든 그의 문제를 James의 탓으로 돌린다. 아버지의 인색함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의 부재로 Jamie가 방탕하고 무능력해졌다면 James를 원망한다. 이러한 그녀의 타인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자신은 불행한 현실에서 면죄부를 얻고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Jamie의 불행한 삶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또한 Edmund의 부정적인 성격 형성에 이유였음을 그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Jamie는 어머니가 멀어질수록 어머니의 사랑에 더욱더 집착하고, 어머니가 불행해

---

34) Normand Berlin, *Eugene O'Neill* (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 14.

할 수록 그 원인을 아버지 James에게 돌리며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 도피의 통로로 마약 중독에 빠져들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Mary에게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dmund 또한 어머니 Mary와의 관계가 그의 성장 과정 중 중요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Edmund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로 스스로의 생존의 정체성을 항상 의심하였다.

Mary는 자신의 마약 중독의 원인이 Edmund의 출생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아들의 출생조차도 원망하는 이해하기 힘든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Edmund는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고,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부정적이고 소심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에도 가정이나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항상 자신을 이방인처럼 느끼게 된다. 게다가 결핵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평소에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착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의 마약중독을 알고도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Edmund는 어머니 Mary를 닮아 예민하고 병으로 수척한 인물이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Mary가 마약중독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태어나자마자 죽은 형 Eugene의 대치 인물로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존재가 인생의 부적격자로서 태어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병약하게 되고 형 Jamie의 시기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은 *Long Day's Journey into Night*를 쓰기 오래 전 어머니의 절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The Great God Brown*의 오닐의 자전적 영웅인 Dion Anthony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나는 사는 게 두려울까? 삶을 사랑하고 인간의 미를 사랑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살아있는 빛깔을 사랑하는 나인데. 나는 왜 사랑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나인데 왜 나는 두려워할까?... 왜 나는 반항하며, 증오하는 죄수처럼 우리 속에 살아야하는가? 평화와 우정을 사랑하는 나인데. 왜 나는 피부 없이 태어났는가? 오 신이시여, 나는 만지기

위해서나 잡히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Why am I afraid to live, I who love life and the beauty of flesh and the living colors of earth and sky and sea? Why am I afraid of love? Why am I afraid, I who am not afraid?... Why must I live in a cage like a criminal, defying and hating, I who love peace and friendship? Why was I born without a skin, O God, that I must wear armor in order to touch or to be touched? 35)

이 작품에서 Edmund는 오늘 자신의 화신으로 윗글을 통해서도 그의 냉소적이고 우울한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극 중 자신의 병을 가벼운 감기쯤으로 아는 어머니에게 Edmund는 요양소에 들어가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병의 심각성과 죽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Mary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나 Mary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Edmund의 폐병이 외할아버지의 유전이 원인일 지도 모른다는 그의 이야기에 날카롭게 반응하며 Edmund의 우울하고 병적인 성격을 탓하며 그를 좌절하게 만든다. 이렇듯 Mary는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주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의 심리처럼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보이며 가족들을 절망시킨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식을 보호한다면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자식의 성격을 형성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자신의 친 아버지를 James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Mary로 투영하며 그들의 장점만이 아닌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인색함으로 인한 안정된 가정의 부재, 현실 도피적인 어머니로 인한 정서적인 소외감이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 다시 한 번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를 되짚어 보게 한다.

---

35) Gelb, *op. cit.*, p. 55.



### C. 형제간의 질투와 용서

오늘의 작품 세계에서 있어서 비극은 숙명적인 것이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극중 인물들이 영위하는 삶의 형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으로 보인다. Williams가 *Modern Tragedy*에서 인용하듯이 오늘날 인간이 철저하고립적인 존재로서 “삶이란 자신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Life has no meaning outside himself)<sup>36)</sup>라고 말하고 혼자서 운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외로운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 작품속의 인물들은 각자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 외로워하는 Jamie와 이 극의 중심인물인 Edmund는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하며 세상에 소속되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로서 이 두 형제의 갈등과 용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Jamie와 Edmund의 갈등의 주된 요인은 Jamie의 질투와 시기에서 기인한다. 이는 단순한 Jamie의 본성적인 것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를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Jamie는 어린 동생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을 시기해 동생 Eugene에게 일부러 홍역을 옮겨 결국 죽게 하기에 이른다고 묘사되어진다. 이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머니 Mary가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Jamie에게 그 탓을 지나치게 돌리는 현실도피적인 생각으로 보여 진다. 당시 7세였던 Jamie가 동생을 시기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느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질투였지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일 이후로 Jamie는 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고, 유독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에게 어머니의 미움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어릴 때 영특하여 우수 기숙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그였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게 된다. 이러한 학창시절의 모습은 아버지 James를 실망하게 하고 점점 더 그는 방탕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 Eugene의 죽음의 상처를

---

36) Raymond Williams, *Modern Traged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p. 116.

치유하기 위해 어머니는 Edmund를 낳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Jamie에 대한 실망을 Edmund에 대한 기대로 대체하게 된다. 이에 Jamie는 동생에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일부러 그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면에 Edmund의 폐병을 알고는 강한 사랑과 형제애를 보여준다. Edmund 또한 방탕한 생활로 부모님의 실망의 대상인 형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형에게 의지하며 두 형제는 화해의 양상을 보인다.

Jamie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장 불행해 하며, 계속 해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며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며 무능력한 33세의 청년이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여, 어머니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지 못한 아버지의 인색함을 비난하고, 동생 Edmund를 질투하여 그를 일부러 나쁜 길로 몰아넣는 극중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1막에서 Jamie와 James는 Edmund의 병 치료에 대해 논쟁하며 서로를 비난한다. James는 Edmund의 병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Jamie와 Edmund를 비교하며 Jamie를 비난한다. Edmund는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배짱을 지니고 있고, 신문사 기자로서의 역할도 잘 해냈지만, Jamie는 항상 의존적이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재능도 없다며 Jamie를 비난한다. Edmund를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Jamie는 Edmund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그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이미 좋아요. 제가 에드먼드한테 세상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건 개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뒤부터였어요. 형답게 좋은 충고를 해주려고 하면 걔 저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개랑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서 개가 형의 실수들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신중하게는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에요. 꼬맹이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동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아시잖아요. 우린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겐 위해서라면 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Jamie All right. I did put Edmund wise to things, but not until I saw he'd started to raise hell, and knew he'd laugh at me if

I tried the good advice, older brother stuff. All I did was make a pal of him and be absolutely frank so he'd learn from my mistakes that -Well, that if you can't be good you can at least be careful. That's a rotten accusation, Papa. You know how much the Kid means to me, and how close we've always been - not like the usual brothers! I'd do anything for him. (35)

Edmund의 병에 대해 걱정 하던 중 Jamie는 절규하듯 말한다. Edmund에게 술과 창녀 등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소개했지만, 그를 타락의 길로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 동생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괴감과 동생에게 어두운 세상을 보여줌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Jamie는 가족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모성을 끊임없이 갈구 했지만, 사랑을 얻지 못하고 항상 가족들 속에서 주변인처럼 서성이며 외로워하며 소외당하며 살아 와야만 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고, 동생보다 유능하지 못한 형임에 늘 동생과 비교되어 차별 당했어야만 했다.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가족의 포용이었던 것이다.

4막에서 Jamie와 Edmund는 좀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Jamie는 형으로써 진심으로 동생의 병을 걱정하고 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취기를 통해 마음을 고백한다. Jamie는 Edmund를 덩치만 큰 어린애, 어머니의 아기, 아버지의 귀염둥이, 집안의 기대주라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처음으로 시를 접하게 해 주고 글을 쓰고 싶은 꿈을 품게 해 준 동생 이상의 또 다른 자신으로 Edmund를 생각한다고 고백한다. Jamie 자신이 표현했듯이 그는 Edmund를 자신의 프랑켄슈타인, 즉 또 다른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Jamie와 Edmund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자신이 상대방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곧 극 사실에 더욱 괴로워하고 사과를 말을 건넨다. Harold Clurman의 표현대로 끊임없는 감정의 변화를 겪는 등장인물 모두는 분개와 사과라는 두 가지 목소리의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sup>37)</sup> 이 두 형제의 관계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망, 죄책감, 비

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재해 있는 애정의 사슬이 그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괴롭히고 새로운 약점이 밝혀질 때마다 격렬하게 질책하지만, 곧바로 상대방의 진심을 깨닫고 사과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내면에는 원망과 분노가 동정과 이해와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4막에서 Jamie는 자신이 정말 감추고 싶었고 그동안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속죄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던 Jamie는 어머니의 마약 중독을 알고 좌절하게 되고, 어머니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Edmund의 출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를 미워했고, 동생의 재능을 질투하며 일부러 술과, 창녀 등의 타락의 길을 가르쳤다고 고뇌한다. 그동안 자신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는 Edmund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Jamie의 동생에 대한 애절한 심정은 Edmund의 병이 깊어 요양소로 보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술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왔던 자신의 동생에 대한 양면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다. Edmund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쳐왔지만, 사실 그는 Edmund를 또 다른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외로운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에, 동생의 무서운 병 앞에서 Edmund가 그를 증오할 위협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고백하며 사죄하는 것이다.

Carpenter는 이 극에서 두 형제 사이의 이러한 갈등을 자신의 형제를 자신과 같은 무(無)의 경지로 줄어들게 하고자 했던 카인과 그에 의해 희생된 아벨 사이의 갈등으로 보았다. 이 갈등은 냉소적 물질주의자와 영감적 예술가 즉, 냉소적 부정주의와 부정적 인생관을 초월한 이상주의라는 서로 다른 인생철학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한 성격 차의 갈등이 아니라고 설명한다.<sup>38)</sup> Edmund와 Jamie의 화해는 형제간의 우의를 더욱 깊게 하는데, 이는 주로 Jamie의 통렬한 비판이나 자신의 감정의 솔직한 토로, 그리고 Edmund의 관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37) Harold Clurma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O'Neill and His Plays: Four Decades of Criticism*. Oscar Cargill, N. Bryllion Fagin and William J. Fisher, ed.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1), p. 216.

38) Carpenter, *op. cit.*, p.161 참조.

Edmund는 Jamie의 진심어린 고백으로 Jamie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Edmund 또한 자신의 출생으로 어머니의 마약 중독이 시작되었다는 자책감에 항상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비관적인 어두운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소속감을 찾기 위해 해양생활을 경험하기도 했고, 문학적 예술적 재능을 살려 신문사에도 일하는 듯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가 지닌 불안정함과 귀속의 상실은 그를 항상 따라 다니며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문제를 추적하고 도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과 대화 속에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Edmund는 Jamie와의 대화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고 형제애를 더욱 강하게 만들게 된다.

제이미 이제 한결 마음이 가볍구나, 고백을 하고 나니. 넌 나를 용서할거야, 그렇지, 꼬맹아? 넌 이해할 거야. 넌 좋은 녀석이니까. 그래야지. 내 작품인데. 가서 나아서 돌아와라. 나를 두고 죽으면 안돼.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신의 은총이 있기를.

Jamie That's all. Feel better now. Gone to confession. Know you absolve me, don't you, Kid? You understand. You're a damned fine kid. Ought to be. made you. So go and get well. Don't die on me. You 're all I've got left. God bless you, Kid. (170)

Jamie는 고백이 끝나고 동생 Edmund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Edmund 또한 질투심으로 자신을 망치려고도 하였던 형이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형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형제는 화해하게 된다.

Jamie의 마지막 고백 중에서 “형제를 자신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Greater love hate no man than this, that he saves his brother from himself. (167))라고 말한 대사는 주목해 볼 만하다. Jamie는 자신이 Edmund에게 불신을 받더라도 그를 위해 고백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함을, 그러면서도 자신의 경솔함을, 신성 모독과 조소 자기 경멸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반성하게 되어 Edmund로 하여금 가족을

이해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소속감을 얻도록 도와준다.

극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순간적인 화해는 우울한 비극을 통해 좀 더 고차원적인 낙관과 희망을 갖게 하려는 측면으로 파악되며 비평가들은 이점에 관해서, 고통가운데서도 동정과 이해와 용서를<sup>39)</sup>, 그리고 삶의 우울과 좌절 속에서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이해를 갖게 하려는 오닐의 비극의 특성<sup>40)</sup>으로 파악되어 진다고 말하고 있다.

---

39) Travis Bogard, *Contour in Time : The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221 참조

40) Bhagwat S. Goyal, *The Strategy of Survival* (Ghaiabad, India: Bimal Prakashan, 1975), p. 140 참조.

## V. 결 론

『밤으로의 긴 여로』의 최후의 단계에서 오닐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실험과 아름다운 철학으로 현재에 그 자신과 가족의 실체를 회고하고 지배하려 한다.”<sup>41)</sup> Frenz가 지적하듯이 James와 Mary, 부부와 두 아들, Jamie와 Edmund를 통해 펼쳐 나가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감동으로 엮어지는 고백은 이러한 갈등의 수용 과정에서의 과거에 대한 회고와 극복하려는 철학으로서의 오닐의 의도를 잘 반영해 준다. 극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화해는 우울한 비극을 통해 좀 더 고차원적인 낙관과 희망을 갖게 하려는 측면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 등장하는 가족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서 야기 되는 비극의 요인과 동시에 화해의 양상을 짚어보았다. 가족 간에 뒤엉켜있는 삶의 일련의 사건들—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갈등과 비극의 양상들은 비단 한 가족에 국한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통된 인간관계이자, 인간의 무의식적인 본질적인 성향으로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오닐은 가정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자 삶과 사랑의 온실이자 또한 비극의 온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가정의 복합적인 상황이 사회의 환경과 맞물려 비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상호관계를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가 사회 환경과 충돌하여 비극의 요인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남녀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두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구성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 또한 태어난 자녀들끼리의 유대관계 등,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적인 관계가 탄생한다. 오닐은 허구가 아닌 진솔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가족 관계의 극적 상황을 창조함으로써 현대인에게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인간 내면의 본성까지도 깨닫게 해준다.

---

41) Host Frenz and Susan Tuck, *Eugene O'Neill's Critics : Voices from Abroa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4), p. 120.

자신의 가족사를 사실주의 수법으로 숨김없이 펼쳐내며 오닐은 인물들의 독특한 개성을 여실히 묘사하여 생명력과 박진감 동시에 넘쳐나는 인물을 창조했으며, 이러한 자서전적인 인물들로 하여금 더욱 진솔하게 삶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게 하고 또한 가족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사의 비극적 내면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극에서의 갈등은 외부보다는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Tyrone가의 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극적으로 엮어냈다. 갈등은 네 가족이 각자 현재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불평하며 이러한 상황을 변명하며 그 비극의 원인을 찾아 논쟁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진다. James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몰욕에 사로잡혀 가족에게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물로, Mary는 항상 과거에만 집착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현실 도피자로, Jamie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술과 창녀로 인생을 망치는 낙오자로 그려졌다. Edmund는 소속감을 상실한 채 자신의 존재를 찾아 헤매는 이상주의자로 그들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이 주로 묘사되어진다. 그러나 단순한 그들의 비극적인 성향만이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James가 물질주의가자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린 시절 환경, Mary의 나약한 성격, Jamie의 성장환경과 어머니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Edmund의 대화를 통한 가족의 이해 등을 통해 가족들이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통해 오닐은 가장 보편적인 비극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인생의 비극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의 비극개념은 인생과의 투쟁에서 비록 패배할 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인간의 생존사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그의 창작의식의 양쪽을 받쳐주는 일종의 균형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비극성은 그의 자서전 적인 가정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해 아주 잘 나타나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그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비극의 실체와 그 과정의 극복을 매우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James와 Jamie는 가장 큰 반목의 관계로 서로를 전혀 이해하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며 갈등한다. Jamie는 모성애의 결핍으로 인해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게 되고,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린다. James는 큰아들인 Jamie에게 많은 기대를 했으나, 본인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사랑과 배려로 대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인생의 낙오자 취급을 함으로 그를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 어머니와 Jamie의 갈등은 다른 사람들의 갈등보다 더욱 감정적이고 깊은 것이다. 선천적으로 나약한 Mary는 늘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꿈꾸며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려한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슬픔과 좌절감을 안겨준다. 어머니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Jamie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며 외로움에 시달리고, 이러한 감정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걱정하는 동시에 증오하는 양면적인 애증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셋째로 Edmund와 Jamie의 형제 관계 또한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낙오자로 낙인찍힌 Jamie는 동생 Edmund를 질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일부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하고 걱정한다. Jamie는 외로운 인물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또 다른 자신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 논문을 통해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들의 관계 속에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동시에 단순한 비극의 탐색에 그치지 않고 비극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는 가족의 배려와 진정한 사랑의 힘에 있음을 오늘날은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 *Bibliography*

- Alexander, Doris. *The Tempering of Eugene O'Neil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 Alexander, Doris. *Eugene O'Neill's Creative Struggle* (The Decisive Decade, 1924-1933).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 Berkowitz, Gerald M.. *American Drama of the Twentieth Century*. Longman Group UK Limited, 1992.
- Berlin, Norman. *Eugene O'Neill*. New York: Grove Press, Inc., 1982.
- Bogard, Travis. *Contour in Time : the Plays of Eugene O'Ne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Brustein, Robert S.. *The Theatre of Revolt*.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4.
- Carpenter, Frederic I.. *Eugene O'Neill*. New Heave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64.
- Cargill, Oscar., Fagin, N. Bryllion., Fischer, Willam J.. ed. *O'Neill and his plays: Four Decades of Criticism*.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1.
- Clark, Barrett H.. *Eugene O'Neill*. New York: Robert McBride, 1927.
- Clurman, Harold.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O'Neill and His Plays: Four Decades of Criticism*. Oscar Cargill, N. Bryllion Fagin and William J. Fisher,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1.
- Frazer, Winfred D.. *Love as Death in the Iceman Cometh: A Modern Treatment of Ancient Theme*. Gainesville: Th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67.
- Frenz, Host and Tuck, Susan. *Eugene O'Neill's Critics : Voices from Abroa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4.
- Gassner, John. *O'Neill*. N.J. Prentice - Hall, 1964.
- Gelb, Arthur & Barbara. *O'Neill*.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 *O'Neil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 Goyal, Bhagwat S.. *The Strategy of Survival*. Ghaiabad, India: Bimal Prakashan, 1975.

- Griffin, Ernest G.. *Eugene O'Neill: A Collection of Criticism*. New York: McGraw-Hill, 1976.
- Guerin, Wilfred L.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 Hartman, Murray. "Strindberg and O'Neill", *Educational Theatre Journal* 18, Oct.
- Manheim, Michale. *Eugene O'Neill's New Language of Kinship*.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2.
- O'Neill, Eugene.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New He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 Ranald, Margaret Loftus. *The Eugene O'Neill Companio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4.
- Scheibler, Rolf. *The Late Plays of Eugene O'Neill*. Basel: Franke Verlag Bern, 1970.
- Stoop, David & Masteller, James. *Forgiving Our Parents Forgiving Ourselves*, 정성준(역), 2001.
- Winther, Sophus Keith. *Eugene O'Neill: A Critical Study*. New York: Russel, 1962.
- 김용덕, 『미국희곡의 이해』.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진식. 『유진 오닐 評傳』. 서울: 현대미학사, 1999.
- 박용목. 『유진 오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10111009	과정	석사
성명	한글 박수미	한문 朴秀美		영문 Park Su Mi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466-1 신부파스카 202호				
연락처	E-mail : hope24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타난 비극적 갈등의 연구				
	영문 <i>A Study on the Tragic Conflicts i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i>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09년 2월

저작자: 박수미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